

2018년 3월 15일, 남원읍 한남리 한남리노인회관, 문순덕(김은정·정이슬) 조사.
오계정(여, 1935년생, 남원읍 한남리)

- 줄거리: 가난하지만 아이들이 많은 남서방과, 부자지만 아이가 없는 공서방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. 공서방은 남서방에게 큰 밭을 주고 아이를 한 명 데려왔다. 몇 년 후 남서방이 죽었다는 소식에 데려온 아이가 슬프게 우는 것을 본 공서방은 이 아이가 남서방 아이 반, 내 아이 반이라고 해서 아이의 성을 남공가로 지었다.

[제보자] 옛말 하나 골아주카?

옛날에 남서방하고 공서방하고 살았어. 알녁집이 공서방이 살고 우녁집이 남서방 사니까 윗녁집이 남서방은 애기가 여러 개 나고 알녁집이 막 부자라도 아기 가 엊어.

공서방이 남서방 집이 가그녕 우리 제일 좋은 밧 주크매 애기 하나 빌려가肯. 애기 하나 빌어가肯 하나네 아이고, 그럴 수가 있읍니肯 속으로 기분은 좋아도 경 할 수가 있이넨. 경 하난 알력집 공서방이 윗녁집이 강 비난 아들을 났어.

아들을 나니까 그디 애기도 생각을 안 헹 자기 난 걸로 헹 살아오는 디 윗녁집 남서방이 죽었덴 하난. 그 아이가 막 눈물이 나는 거라. 남서방 죽엇젠 하니까. 야 이거는 씨는 안 뒤겠다 헹 그 아이를 남서방 아이인 걸로 헹 성이 남공가. 남서방도 반, 공서방도 반.(웃음)

- 핵심어: 남서방, 공서방, 부자, 아이, 우녁집(윗집), 알녁집(아랫집)